

背戌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Bai Su* (背戌)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緒 論

II. 背戌에 대한 諸見解

III. 背戌의 漢音

IV. 背戌와 周邊語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bai su* (背戌) of Koryo period which is recorded in *Kei Rim Yu Sa* (鷄林類事).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cord of *Bai Su* (背戌) in *Kei Rim Yu Sa* (鷄林類事) was correct. It was not a mistake in writing.

Thus, this word (背戌) was used by the people of Koryo.

The 背戌 of Koryo was related to Aramaic *patash* and Japanese *byets* or *bats*, *バツ*.

It was found that 背戌 of Koryo was very similar to Aramaic *patash*, legging.

It indicates that 背戌 was derived from Aramaic and it was a transliteration of *patash*. Thus, 背戌 was a borrowed word from Aramaic.

Also it was found that 背戌 of Koryo and Japanese *byets* (ベツ) or *bats* (バツ) showed a very close affinity with each other in phonetic value. These words had the same meanings of 襪 one another.

It reveals that 背戌 of Koryo and Japanese *byets* or *bats* has the same origins. Japanese *byets* or *bats* were transliterations of 背戌 of Koryo and they were borrowed words from 背戌 of Koryo.

I. 緒 論

鷄林類事 高麗 方言中에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아직까지 未詳 또는 不明으로 남아있거나 이미

연구가 된 것이라도 그 중에는 문제가 있는 어휘도 있다.

지금까지의 鷄林類事方言 研究는 國語史的인 內的 研究가 많았으므로 바른 解讀과 解釋이 不可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해독과 해석도 있어왔다.

이러한 어휘 중에는 服飾이나 織物 관련 어휘도 예외는 아닌데 한가지 예를 들면 「襪曰背戌」에 대한 既存의 연구일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주변언어와의 比較研究를 통하여 背戌란 高麗語를 解讀하고 解釋하며 보고자 하며 比較言語學의 研究方法를 使用하고자 한다.

II. 背戌에 대한 諸見解

鷄林類事 高麗方言 「襪曰背戌」란 기록의 背戌란 말은 版本에 따라서 背戌의 끝글자가 背戌, 背戌, 背戌, 背戌 등의 몇 가지 다른 글자로 나타난다. 港大明鈔本과 藍格明鈔本, 麗言攷에는 背戌로 海史鈔本에는 背戌로 기재되어 있고 涵芬樓校印 明鈔說郭本에는 背戌으로, 그 외의 다른 본에는 背戌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襪曰背戌」의 解讀이나 解釋에 대한 다른 見解가 있게 하였고 또한 이것의 해독과 해석에 오류와 혼란도 야기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涵芬樓 說郭本은 張宗祥이 五種의 明鈔本을 對照하고 校正한 것으로서 1927년에 刊行된 것이다. 이 張宗祥 校正 說郭本에만 「襪曰背戌」는 「襪曰背戌」으로 修正되었다. 그가 「襪曰背戌」를 「襪曰背戌」으로 修正한 根據는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明鈔本을 修正할 당시에 그는 襪의 의미인 「보선」이란 李朝語와 「버선」이란 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推論할 수 있다. 「背戌」를 「背戌」으로 修正한 것은 背戌이 「보선」 「버선」과 類音인 것에 연유한 것이었을 것이다.

方鍾玄은 그의 연구에서 「襪曰背戌」의 背戌를 「보선」이라 해독하였으므로¹⁾ 李基文은 이것에 대

하여 未詳의 것이라 하였다²⁾.

金喆憲은 「襪曰背戌」를 「襪曰背戌」으로 修正하였다. 「襪曰背戌」은 이미 張完祥이 그렇게 修正한 것이다.

金喆憲은 「襪曰背戌」의 「背戌」을 puai-crjəng 외경으로 解讀하고 그것을 「뵤(布)청」이라 하면서 「배버선」으로 解釋하였다³⁾.

陳泰夏도 張宗祥 校正本의 「襪曰背戌」의 記錄을 그대로 따랐다. 그는 李朝語로 襪을 po-sjən이라 하였으므로 背戌의 音値는 襪의 李朝語 po-sjən과 相合하고 단지 韻尾의 「ng」과 「n」의 差異가 있을 뿐이므로 背戌은 po-sjən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또한 그는 他本에 나타나는 背戌, 背戌, 背戌의 戌戌戌은 모두 戌字의 誤字로 보았다⁴⁾.

陳이 「襪曰背戌」의 背戌를 「보선」으로 解讀한 것도 襪의 李朝語가 「보선」인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姜信沆도 「襪曰背戌」란 기록 대신에 위의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襪曰背戌」을 택하였고, 背戌을 漢音 puaitɕ'əng, 또는 puai-sjən으로 읽고 우리 말로는 이二音을 po-sjən 즉 보선과 뵤청으로 읽었다⁵⁾.

위에서 보면 姜信沆은 背戌의 해석에서 金喆憲의 見解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張宗祥이 「襪曰背戌」를 「襪曰背戌」으로 修正한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은 그가 修正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鷄林類事 高麗方言에는 우리가 아무리 研究하고 노력하여도 알 수 없는 말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傳寫할 때의 글자의 탈락이나 또한 誤寫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現在 우리가 알 수 없는 말 또는 研究者가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하여 진지한 연구없이 원저작의 기록을 오류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치는 일은 삼가야 한다.

鷄林類事 方言 研究에서 服飾관련 用語도 다른 用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用語들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 가운데 하나는 「襪曰背戌」가 「襪曰背戌」로 수정된 것이다.

1) 方鍾玄, 「鷄林類事 研究」, 東方學志 2, 1955, p. 185.

2) 李基文, 「鷄林類事의 一考察」, 일석 이희승선생 송수기념논총, 1957, p. 396.

3) 金喆憲, 「鷄林類事 研究」, 국어국문학 25, 1962, p. 104.

4) 陳泰夏, 鷄林類事 研究, 1975, p. 492.

5) 姜信沆,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1980, p. 87.

鷄林類事 高麗方言 「襪曰背戍」란 기록은 正確하며 高麗에는 漢語으로 背戍에 相應되는 高麗語가 있었다는 論旨을 가지고 이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背戍의 漢音

高麗語 「背戍」란 말과 類音을 가진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比較하여 보기 위하여 먼저 背戍의 漢音을 찾아 보기로 한다.

背戍의 漢音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背音

1. 「廣韻」, 「集韻」, 「韻會」 補妹切 「正韻」 邦妹切 音輩, 隊, ³⁸ *bey, pei*⁴
2. 「廣韻」, 「集韻」, 蒲妹切 「正韻」 步昧切 音隊 隊 玄聲 *pey, pei*⁴
3. 「五音集韻」 補妹切, 音輩 玄隊 *pei*⁴
4. 「國語大辭典」 音杯 *bei*
5. William 古音 *pei, pai, pit, pat, bat*, 北宋汴梁(開封) 語音(陳, p. 772) *puai*

戍音

1. 「廣韻」 傷遇切 「集韻」 「韻會」, 春遇切 音束 遇 ³⁹ *shu⁴, shuh*
2. 平山久雄 *siuə siuə*⁶⁾
3. 周祖謨 *sy*⁶⁾
4. 中原音韻 *fiu*⁶⁾
5. 北宋汴梁(開封) 語音⁷⁾ *siu*
即 背戍의 漢音은 다음과 같이 날 수 있다.

$\left. \begin{array}{l} bey \\ pei \\ pey \\ pai \\ pit \\ pat \\ bat \\ puai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shu(shuh) \\ siuə \\ sy \\ fiu \\ siu \end{array} \right.$
--	---	--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背의 音價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宋代의 漢音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여러 音中에서 어느 한 音이거나 또는 그 類音이 鷄林類事 高麗方言 背戍란 말의 漢語 音譯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音이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背字는 「襪曰背戍」외에도 「布曰背」, 「苧布曰手施背」, 「袴曰珂背」, 「襯曰安海珂背」 등에 보인다. 이 中에서 「布曰背」라고 한다는 기록에 대한 해독은 학자들 간에 李朝語로 布를 「외」라고 했던 것을 따라서 고려의 「布曰背」도 「외」라고 읽었다.

이런 연고로 연구자들은 「襪曰背戍」의 背戍를 「외수」라고 읽었다. 그리고 「背戍」의 해석에서 背를 布(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앞에 예시된 背字의 漢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背字는 여러 音이 있지만 「외」 音은 찾아 볼 수 없고 「외」와 類似한 音이라 할 音들은 있다.

연구자들은 「襪曰背戍」의 기록에 대한 해독과 해석에서 「背戍」를 「背戍」으로 수정하고 背戍의 背를 布(외)로, 戍를 「청」으로 읽고서 이것을 李朝語에 보이는 襪의 意味로 해석하였다.

환언하면 「襪曰背戍」란 기록을 그대로 두고 그 해석에 대하여 不明이라고 한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背戍」으로 고치고서 背(외=布)+戍(청=襪) 卽 布+襪의 意味인 外+청이란 複合詞라고 해석한 연구자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도 잠깐 지적하였지만 이 「襪曰背戍」란 기록을 「襪曰背戍」으로 수정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襪曰背戍」를 「襪曰背戍」으로 수정한 것은 1927년 출간된 張宗祥校正 涵芬樓明鈔說郛本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涵芬樓 校印 明鈔說郛本보다 앞선 여러 本의 기록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 없이 이 張宗祥 校正 明鈔說郛本의 「襪曰背戍」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襪

6) 姜信沆 p. 39

7) 陳, p. 771

日背成」를 「襪日背成」으로 修正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뿐만 아니고 「襪日背成」의 「背成」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것을 한국어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한 점도 무리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IV. 背成와 周邊語

그러면 襪의 意味인 背成란 高麗方言이 高麗語에만 있었던 말이었는지 아니면 高麗語 外의 다른 言語에도 高麗語 「背成」와 유사한 말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어에서 背成와 類音을 가진 말이나 또는 背成와 類音이면서 유사하거나 同一한 意味를 가진 말을 찾아서 그것들을 比較하여 보아야 한다.

言語中에서도 특별히 복식관련 用語는 그 전파력이 대단히 크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高麗語 「背成」와 比較할 수 있는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末에서 18세기 初의 日本語로 襪을 “베즈”라 읽었다.⁸⁾

襪은 또한 바쯔라고도 읽힌다.

위의 日本語음 베즈(バツ?)와 바쯔는 高麗語 背成와 거의 같은 類音일 뿐만 아니라 襪이란 意味도 同一하다.

이로 볼 때 고려어 背成와 日本語 베즈, 바쯔는 同系기원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末~18세기 初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에 襪을 日本語로 “베즈”라고 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베즈”란 日本語는 이미 17세기 末~18세기 初 이전에 日本人들이 사용했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襪이란 漢字를 언제부터 “베즈”또는 “바쯔”라고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襪이란 漢字를 日本語로 “베즈”라고 읽었던 것은 襪을 背成라고 했던 高麗語를 借用하여 그것을 日本語로 音譯한 것이 틀림없다. “바쯔”란 말도 背成의 借用語로서 이말의 音譯이거나 또는 背成의 변형일 것이라 생각된다.

高麗語 背成와 대응시킬 수 있는 말은 Aram

語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patash란 말이다. 이 말은 garment, tunic, 또는 leggings 등으로 해석되는 말이지만 garment와 tunic이란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高麗語 背成는 아람語 patash 또는 patash와 類音일 뿐만 아니라 襪, leggings란 두 말의 意味까지도 同一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漢音으로 記錄된 襪의 뜻인 高麗語 背成란 말은 아람어 patash, patash가 legging의 의미와 함께 고려에 流入된 말이며 고려의 背成란 말은 patash(patash)란 말의 借用語로서 그것을 고려어로 音譯하여 고려인이 사용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말을 鷄林類事的 著者が 듣고 그 말을 漢語로 音譯한 것임이 分明하다.

V. 結 論

앞에서 論議된 것을 종합하여 結論을 도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鷄林類事的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襪日背成」라는 記錄은 誤記가 아니다. 그러므로 高麗語에는 漢音으로 背成에 상응되는 襪을 意味하는 方言이 있었다.

高麗의 背成란 말과 比較할 수 있는 말은 주변어에서도 발견되었다.

鷄林類事的 高麗方言 “背成”란 말은 아람語 patash(또는 patash)의 音譯으로서 이 말의 借用語이다. 이 말을 漢音으로 音譯하여 기록한 것이 背成인 것이다.

背成란 말은 patash(patash)의 leggings란 意味까지도 同一한 것을 借用하였다.

日本語 베즈 襪(또는 바쯔)는 背成를 寫音한 것이며 그 意味까지도 그대로 借用한 것이다.

參考文獻

- 강신범,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김철현, 鷄林類事研究, 「국어국문학」 25, 1962.
 남광우, 시개연구, 국어국문학, 제25호, pp. 3-16,

8) 倭語類解 上 46.

1962.
 남광우, 고어사전.
 노걸태 언해.
 동문유해.
 몽어유해.
 문선규, 조선관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2.
 박통사 언해.
 방종현, 계림유사 연구, 「동방학지」2, 연세대 동방학 연구소, 1955.
 방학근,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1978.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동광출판사.
 孫穆, 鷄林類事.
 방언집석.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역어유해.
 劉昌宣, 鷄林類事 高麗方言考, 한글, 제6권3호, pp.8-11, 昭和9年.
- 유창순, 이조어사전.
 유창순, 鷄林類事補敲, 최현배선생환갑기념논문집, pp. 131-155, 서울:思想界社, 1954.
 왜어유해.
 이기문, 제림유사의 일고찰, 일석 이회승선생 송수기념 논총, pp. 394-407, 서울:일조각, 1957.
 陳黍夏, 鷄林類事研究, 서울:塔出版社, 1975.
 崔文吉, 鷄林類事 未解讀語彙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前問恭作, 鷄林類事麗言攷, 東洋文庫論庫 3, 日本東京:東洋文庫, 大正1年(1925).
 Ka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Williams, S.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